

##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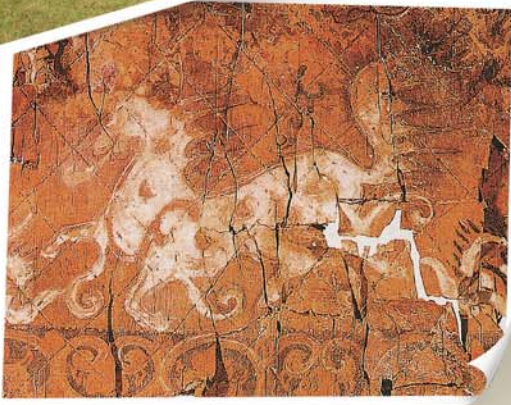


삼국이 성립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삼국이 제도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발전한 과정을 파악한다. 또한, 삼국과 가야의 문화가 지니는 특징을 이해한다.





기원전 27년  
로마, 제정 시작



226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성립

320년  
인도, 굽타 왕조 성립

395년  
로마 제국, 동서 분열

439년  
북위, 화북 지역 통일

476년  
서로마 제국 멸망

- 기원전 57년  
신라 건국
- 기원전 37년  
고구려 건국
- 기원전 18년  
백제 건국

● 260년  
백제, 16관등과 공복 제정

● 372년  
고구려, 태학 설립

● 427년  
고구려, 평양 천도

● 433년  
나·제 동맹 성립

● 520년  
신라, 율령 반포

● 538년  
백제, 사비 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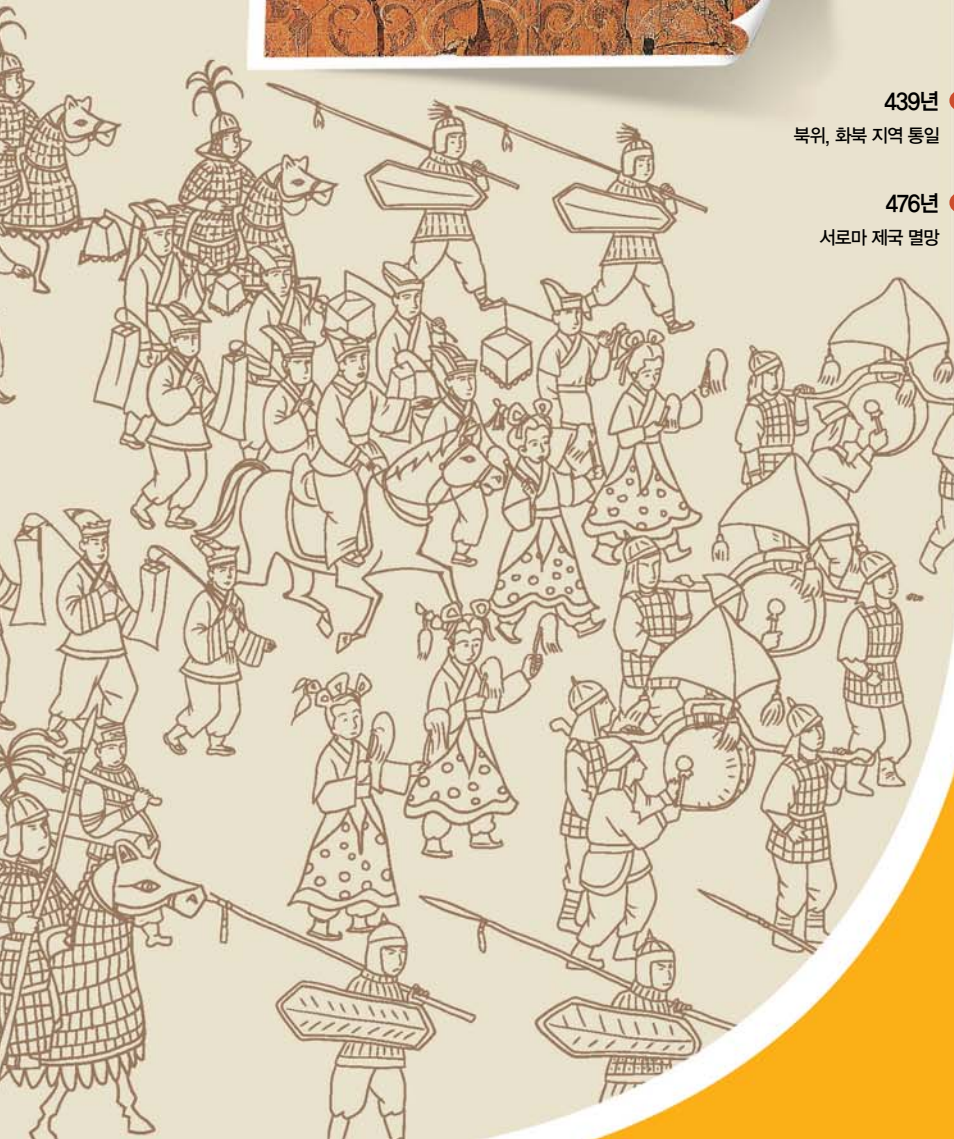
● 562년  
대가야 멸망

## 1 고구려의 성장과 영토 확장

## 2 백제의 성장과 대외 활동

## 3 신라의 발전과 가야

## 4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



# 1

## 고구려의 성장과 영토 확장

단원을 배우면

- ▶ 고구려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말할 수 있다.
- ▶ 소수림왕이 어떻게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는지 설명할 수 있다.
- ▶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확장된 영토를 지도에서 나타낼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고구려 고분 무용총에 그려진 벽화의 일부로, 말을 탄 채 몸을 뒤로 하여 활을 쏘는 어려운 기술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사냥과 무예를 중시하는 고구려인의 씩씩한 기상은 일찍부터 정복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고구려는 어떻게 대외적으로 팽창하였을까?



### 1 고구려, 중국에 맞서 성장하다

**고구려의 성장** 주몽에 의해 건국된 고구려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설치된 중국의 군현에 맞서 싸우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1세기 후반 태조왕 때에는 토지가 비옥한 옥저를 정복하고 현도군을 공격하면서 요동 지방으로 진출을 꾀하였다.



**왕권의 성장** 고구려는 계루부, 절노부 등 5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정복 활동으로 왕권이 성장하면서 계루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였다. 이에 따라 부족적 전통을 지녔던 5부는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되었고, 독자적 세력을 가지고 있던 족장들은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면서 왕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 건국 초기 고구려의 수도 이전

📍 오녀산성(라오닝 성 환런)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졸본의 홀승골성으로 추정된다.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로 산 정상은 넓은 평탄지이며, 고구려 초기의 많은 집터가 발굴되었다.





**위와 전연의 침입 격퇴** 3세기경 고구려는 위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국왕이 피신하는 일까지 겪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위의 군대를 격파하고 국력을 차츰 회복한 후 중국의 혼란을 틈타 다시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4세기에는 낙랑군을 점령하여 중국의 군현 세력을 몰아내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여 전연과 대립하였다. 그러나 전연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위 한이 멸망한 후 조조가 중국의 북쪽 지방에 세운 나라로, 유비의 촉, 손권의 오와 함께 “삼국지”에 등장한다.

**전연** 중국의 5호 16국 시대에 있었던 나라로, 북방 유목 민족인 선비족의 모용씨가 세웠다. 전진에 멸망하였다.



❧ **환도산성** 평지성인 국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성으로, 국내성과 압록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 **장군총**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고구려의 거대한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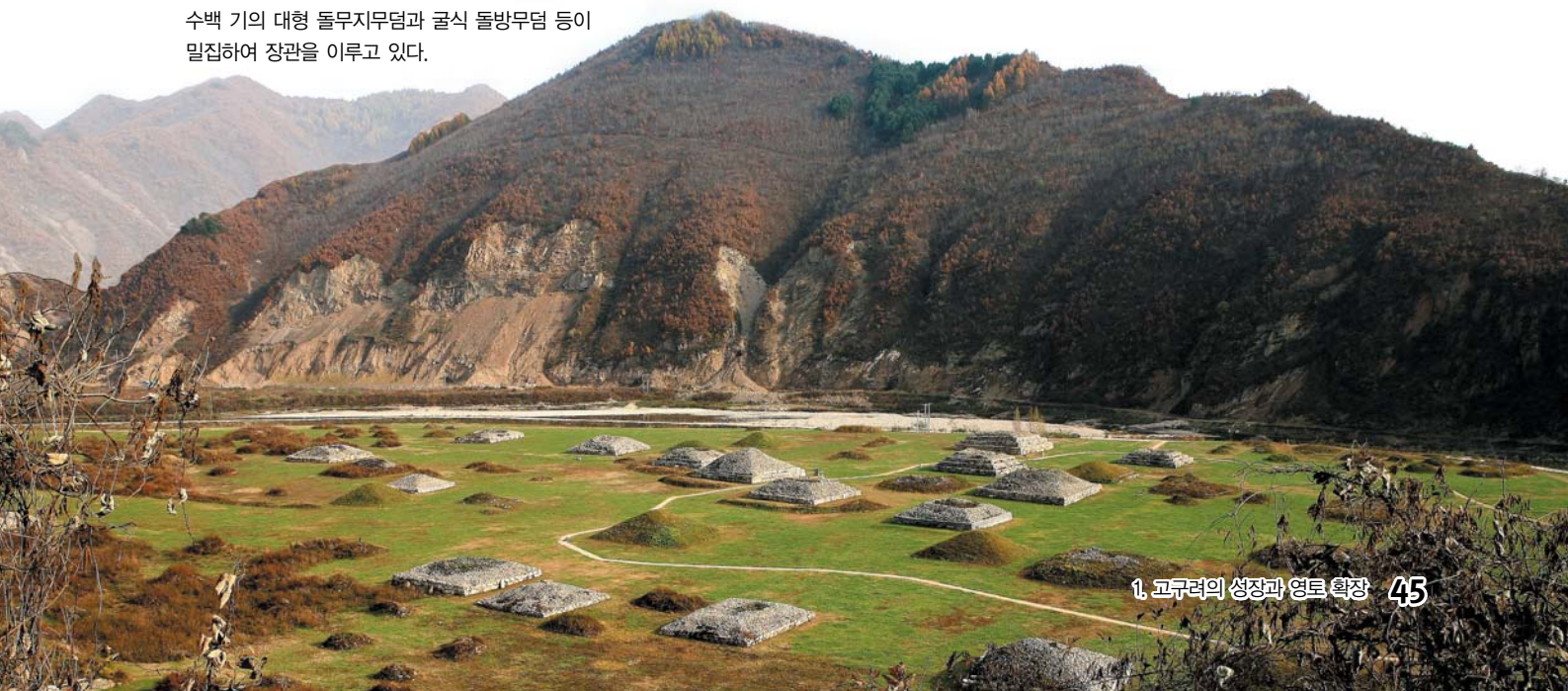


❧ **지린 성 지안(국내성 일대)의 모습** 국내성은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지로 압록강을 해자(방어)를 위해 성 둘레에 판 못)로 삼아 성을 방어할 수 있게 만들었다.



❧ **국내성 성벽** 전체 둘레가 2,686m에 이른다.

❧ **환도산성 아래에 있는 고분들의 모습** 넓은 벌판에 수백 기의 대형 돌무지무덤과 굴식 돌방무덤 등이 밀집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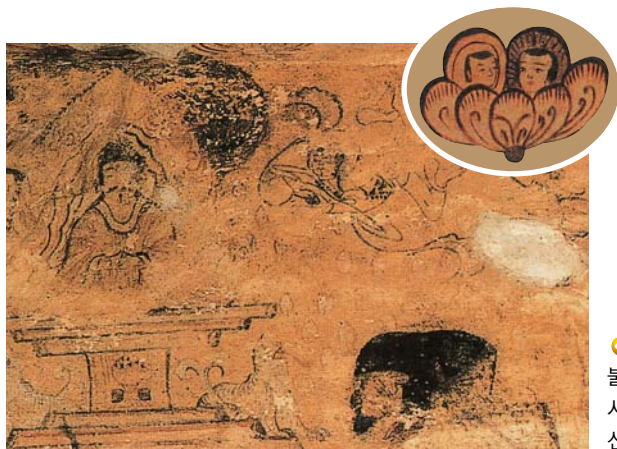
## 2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다

**왕권과 불교** 불교에서는 전생에 쌓은 공덕과 허물로 현생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왕과 귀족의 우월한 지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백제와의 대립** 전연이 멸망한 후 고구려는 전진과 우호 관계를 맺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켰다. 그리고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백제와 맞서게 되었다. 백제는 가야·왜 세력과 손잡고 고구려를 견제하였고,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하여 남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전사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율령** 형벌과 행정에 관련된 법규를 말한다.

**소수림왕의 집권 체제 정비** 소수림왕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집권 체제 정비에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설립하는 한편,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규범을 갖추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으로 고구려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여 국가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천 1호분(지린 성 지안)의 예불도와 연꽃 화생도 불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과 주인공 부부가 연꽃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그린 벽화로, 5세기경 고구려 불교 신앙의 모습을 보여 준다.



### 고구려의 도약을 꿈꾼 소수림왕

**기자:** 전연의 침입으로 미천왕의 시신이 탈취되고, 아버지인 고국원왕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전사하는 국가의 위기 속에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왕:** 그렇습니다. 즉위한 후 곧바로 ㉠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혼란한 사회를 종교로써 안정시키고 더불어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을 반포하여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도 갖추었습니다.

**기자:** ㉢을 설립한 것도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유교를 적극 받아들여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에 적합한 관리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 게 아니었습니까?

**왕:** 맞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함수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 3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영토를 넓히다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4세기 말 광개토 대왕은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정복 사업을 벌여 나갔다. 그 결과 삼국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광개토 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고,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여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가야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또한, 후연을 공격하여 풍부한 철 산지인 요동 지역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부여와 숙신을 굴복시켜 만주 일대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한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 **태왕릉과 태왕릉 출토 청동방울** 태왕릉은 광개토 대왕릉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발굴된 청동방울에 광개토 대왕을 가리키는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 태왕릉은 광개토 대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 **광개토 대왕릉비(지린 성 지안)** 아들 장수왕이 세운 높이 6.39m의 거대한 비석이다. 비문에는 고구려의 건국 과정, 광개토 대왕의 업적, 무덤 관리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 역사 탐구

#### 광개토 대왕의 정복 전쟁

(가) 왕이 패수에서 백제를 크게 대패시키고 8,000여 명을 사로잡았다. “삼국사기”

(나)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도와주게 하였다. 남거성에서 신라성까지 왜적이 가득하였다. 왕의 군대가 이르자 왜적이 도망하였다. 왜적을 쫓아 임나가라(가야)의 종발성에 이르자 성이 곧 복종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

(다) 동부여가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아 태왕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정벌하여 이들을 굴복시켰다. 태왕의 은덕이 널리 퍼져 64개의 성을 평정하고 돌아오셨다. ‘광개토 대왕릉비’

(라)



☺ **경주 호우총에서 발굴된 청동 그릇** 바닥에 광개토 대왕을 나타내는 ‘국강상광개토지호태왕’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추측하게 해 준다.

1. (가)~(다)를 통해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이 어느 지역까지 미쳤는지 말해 보자.
2. (나)와 (라)를 통해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자.

(백제 비유왕) 7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하였다.

8년 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좋은 말 두 필을 보냈다.

가을, 다시 흰 매를 보냈다.

저을, 신라에서 좋은 금과 구슬을 답례로 보내 왔다.

"삼국사기"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본격화되자 백제와 신라는 사신을 통해 우호 관계를 맺었다. 이후 우호 관계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여 양국은 고구려와 맞설 때 서로 지원군을 파견하였다.

**탐구** 5세기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고구려의 외교 정책** 4~5세기경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며 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광개토 대왕과 그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중국 대륙의 분열과 대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안정을 꾀하였다. 고구려는 전쟁은 물론이고 외교를 통해서도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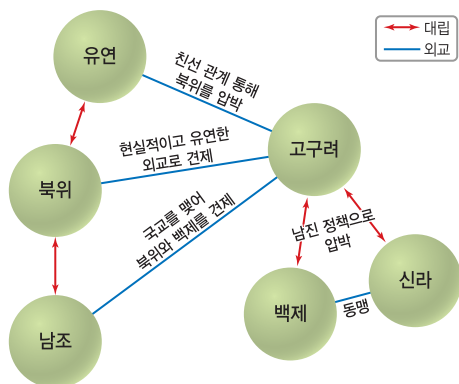
**장수왕의 남진 정책** 외교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장수왕은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427).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군사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맞섰다.

☞ **안악 3호분의 대항렬도(황해도 안악)** 수레를 탄 인물을 중심으로 무장한 고구려 군사의 행렬을 그린 웅장한 벽화이다.



궁금해요!

» 장수왕은 중국 대륙의 정세를 어떻게 이용하였나요?



5세기경 중국의 북쪽 지역을 통일한 북위가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장수왕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북위와의 관계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한편으로는 북위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북방의 유목 민족인 유연과도 손을 잡아 북위를 압박하였으며, 중국 남쪽 지역의 여러 왕조와도 지속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 북위와 백제를 견제하였다.

472년 백제의 개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정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북위가 거절한 것도 장수왕의 이러한 외교 정책에 따라 나타난 결과였다.



하지만 장수왕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475),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한반도 중부 지방까지 영토를 넓혔다. 삼국 간 항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고구려는 부여마저 병합하면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왕을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로 ‘태왕’이라 부르고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부하였다.

그러나 6세기 들어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후 귀족 사이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대립이 심해졌다. 또한, 수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고구려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전성기의 고구려(5세기)



안학궁(복원도) 평양에 있던 고구려의 왕궁이다.



아차산 4보루(복원)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설치한 군사 시설이다.



중원 고구려비(충주 고구려비)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던 사실을 알려 주는 비석이다.

## 내용 정리

### 1.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 (1) 왕권이 성장하면서 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였다.
- (2) 소수림왕은 를 수용하고 을 반포하였다.
- (3) 광개토 대왕은 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였다.
- (4)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유역으로 영토를 확장하였다.

### 2. 글자를 조합하여 해당 내용을 찾으시오.

- (1) 소수림왕이 설립한 유학 교육 기관
- (2) 광개토 대왕의 연호
- (3) 장수왕이 새로 수도로 정한 지역
- (4) 장수왕이 견제하였던 북조의 최강대국

영 태 양 락 평 북 학 위



## 고구려인의 천하관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워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고구려인의 천하관에 대하여 알아보자.



광개토 대왕릉비의 첫머리에는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다. 시조는 북부여에서 나셨는데 천제의 아들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고구려는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다.

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광개토 대왕릉비’

위 내용처럼 광개토 대왕은 정복한 지역의 백성에게 은택을 베푸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를 그들에게 종속된 나라라 생각하고 조공을 받았다.

☞ 광개토 대왕릉비 탁본(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오회분 4호묘(지린 성 지안)의 천장에 그려진 황룡의 모습이다. 황색은 중앙을 가리키며, 이는 세계의 중심을 의미한다.



하백의 손자이며  
해와 달의 아들인  
추모성왕(주몽)이  
북부여에서 태어나셨으니  
천하사방은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알지니

모두루총에서 발견된 묘지(죽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이 묘지를 통해 고구려가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1. 광개토 대왕릉비와 모두루총 묘지에서 볼 수 있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을 설명해 보자.
2. 고구려가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으로 여긴 근거를 찾아보자.

# 2

## 백제의 성장과 대외 활동

### 단원을 배우면

- ▶ 백제의 건국과 체제 정비를 통한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 백제가 펼친 대외 교류 활동의 모습을 말할 수 있다.
- ▶ 동성왕, 무령왕, 성왕이 펼친 백제 중흥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 역사 속으로

오른쪽 그림은 중국 남조의 양나라를 방문한 백제 사신의 모습이다. 그림 옆에는 백제에 대해 '마한에서 시작된 나라이며, 중국의 요서 지방을 차지해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어 백제의 대외 활동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처럼 활발한 교류를 펼쳤던 백제의 발전 모습은 어떠하였을까?



### 1 한강 유역에서 백제가 건국되다

**백제의 건국** 백제는 우수한 철기 문화를 가진 고구려의 유·이민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면서 건국되었다(기원전 18).

백제는 내륙과 해상 교통로가 발달한 한강 유역의 하남 위례성에 자리 잡고 마한의 소국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한강과 황해를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였고, 우수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중국의 군현과 대결하면서 성장하였다.

**체제의 정비**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한강 유역에 있는 마한의 작은 나라들을 통합하였다. 또한, 좌평을 비롯한 관직과 함께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고 관복제 등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백제는 고대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고,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좌평** 백제의 가장 높은 관직으로, 상좌평을 포함한 6좌평이 있었다.

**관복제** 관복 색깔을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달리하여 국왕 중심의 관료 체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하였다.

☺ **풍납동 토성(서울 송파)** 한강변에 위치한 높이 약 15m, 둘레 약 3.5km에 이르는 큰 규모의 토성이다. 최근 여기에서 벽돌, 기와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한, 도로와 우물, 주거지와 창고, 신전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등도 발견되면서 백제의 왕성인 위례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활발한 대외 교류를 바탕으로 해상 강국으로 성장하다



❖ **백제의 대외 활동(4세기)** 백제는 고구려의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면서 중국으로 가는 항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다. 백제의 요서 진출 사실은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탐구** 4세기에 백제와 친선 관계에 있던 나라와 대립하던 나라를 각각 지도에서 찾아보자.

❖ 강원도 원주와 중국 난징에서 발견된 양 모양 청자(왼쪽)와 풍납동 토성에서 출토된 중국제 청동 자루 술(오른쪽)은 중국 남조와 백제의 교류 사실을 잘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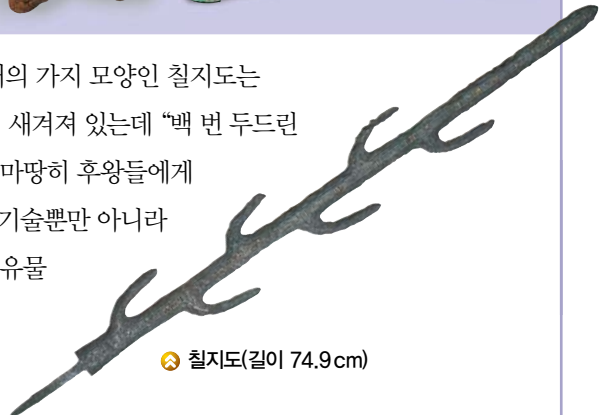
### 칠지도

칠지도는 백제 왕이 왜왕에게 보낸 것이다. 날을 포함해서 7개의 가지 모양인 칠지도는 현재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어 있다. 칼의 양면에 글이 새겨져 있는데 “백 번 두드린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많은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마땅히 후왕들에게 줄 만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백제의 수준 높은 철기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백제와 왜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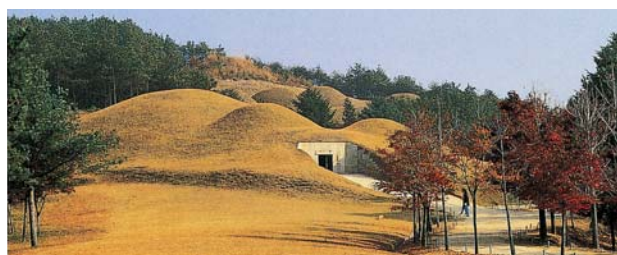
칠지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대 한·일 관계를 말해 보자.

❖ 칠지도(길이 74.9cm)



### 3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하다

**웅진 천도** 5세기 들어 백제는 광개토 대왕의 공격과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에 신라와 동맹을 맺고 북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고구려에 맞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475), 개로왕이 고구려 군대에 목숨을 잃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한강 유역을 상실한 백제는 수도를 금강 유역의 웅진(공주)으로 옮겼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을 비롯한 여러 고분이 모여 있다.

**백제 부흥을 위한 노력** 수도를 옮긴 후 백제의 해상 교역은 침체되었고 대외 팽창도 위축되었다. 또한,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왕권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왕은 신라와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동성왕의 뒤를 이은 무령왕은 귀족 세력을 통제하여 왕권을 안정시키고 군사력을 키워 고구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남조의 양과 교류하여 문화를 발전시켰다. 한편으로 떠도는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농사를 짓게 하고 지방에 담로를 설치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백제는 점차 국력을 회복하였다.

담로 국왕의 자제나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한 행정 구역으로, 중앙 집권적 지방 통치를 위한 거점으로 추측된다.



공산성 백제 도읍이었던 공주에 있는 공산성은 금강과 절벽을 이용하여 적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다.

역사 지식을 넓혀요!

#### » 동성왕의 백제 부흥 노력

백제가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왕권은 약화되었고 귀족 세력이 국정을 주도하였다.

권력 기반이 약했던 동성왕은 금강 유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연씨, 사씨, 백씨 등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 한성에서 내려온 해씨, 진씨 등의 기존 귀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또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하여 남조와 외교 관계를 맺고, 신라 귀족의 딸을 왕비로 삼아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동성왕의 정책으로 백제는 다시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진 세력의 힘이 커지자 동성왕은 이들을 견제하려다가 도리어 피살되었다.



공주 수촌리 유적 출토 금동 관모 천도 이전부터 공주 지역에도 강력한 토착 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알려 준다.





백제의 수도 이전

**탐** 백제가 수도를 웅진과 사비로 옮긴 이유는 각각 무엇일까?

**사비 천도와 성왕**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수로 교통이 편리한 평야 지대인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백제의 중흥을 꾀하였다. 그리고 부여 계승 의식을 표방하며 국호를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고쳤다.

또한, 중앙 관청과 지방의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불교를 장려하여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다.

이렇게 힘을 회복한 백제는 한때 신라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되찾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맹을 깨뜨린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 유역을 다시 빼앗기고 성왕도 관산성에서 신라군에게 목숨을 잃었다. 그 후 백제는 급속히 국력이 약화되었으나 신라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여 갔다.



### 백제의 중흥을 이끈 성왕

성왕은 사비 천도 이후 불교 경전을 들여오고, 불교를 확산시켰으며, 일본에 불교를 전해 주었다. 성왕이라는 명칭도 전륜성왕을 줄인 말이다. 전륜성왕이란 불법의 수레바퀴로 온 세계를 교화시키고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를 뜻한다. 성왕은 불교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의 사상을 통합하여 백제의 중흥을 꾀한 것이다.



**부여 나성** 사비성은 왕궁의 뒤에 부소산성이 있고, 큰 나성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 1. 백제의 발전 과정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             |               |
|-------------|---------------|
| ㉠ 사비 천도     | ㉡ 웅진 천도       |
| ㉢ 관북제 제정    | ㉣ 황해도 일부 차지   |
| ㉤ 나·제 동맹 체결 | ㉥ 관산성에서 성왕 전사 |

#### 2. 관련 있는 내용을 옮겨 연결하시오.

- |          |                              |
|----------|------------------------------|
| (1) 근초고왕 | • ㉠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을 빼앗겼다.      |
| (2) 개로왕  | • ㉡ 수도를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
| (3) 동성왕  | • ㉢ 결혼을 통해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였다.   |
| (4) 성왕   | • ㉤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지역을 차지하였다. |

##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열쇠 무령왕릉

108종 4,60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이 출토된 무령왕릉은 백제의 활발한 대외 활동과 문화 교류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벽돌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으며, 무령왕과 왕비의 시신을 안치한 관은 일본에서 자라는 금송으로 만들어졌다. 이 밖에도 중국의 도자기와 화폐, 금동 신발과 청동 다리미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들



❖ 무령왕릉의 돌짐승 무덤을 지키려는 의미로 만들었으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 오수전 고대 중국의 화폐로,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



❖ 중국식 청동 거울



❖ 중국 도자기



❖ 청동 다리미와 금동 신발 일본의 고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 지석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과 왕비임을 알 수 있는 글이 쓰여 있다.



❖ 왕과 왕비의 금제 관식



❖ 벽돌



❖ 무령왕릉에서 나온 각종 유리구슬



나도  
역사가

1.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중국, 일본과 관련 있는 유물을 나열해 보자.
2. 무령왕릉을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보물 창고'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 3

## 신라의 발전과 가야

단원을 배우면

- ▶ 신라의 체제 정비와 영토 확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나타난 특징과 가야와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역사 속으로

오른쪽 사진은 경주 월성의 모습이다. 반달처럼 생겨서 반월성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신라의 왕이 거주하는 왕성이었다. 반월성이 있는 경주를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보다 늦게 성립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 거서간(귀인)
- 차차웅(제사장)
- 이사금(연장자, 계승자)
- 마립간(대수장)
- 왕

☞ 신라 왕호의 변화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 칭호의 사용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면서 왕권이 강력해졌음을 알게 해 준다.

☞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이 거대한 고분들은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던 '마립간'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 1 체제를 정비하여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다

**신라의 건국** 신라는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유·이민 세력이 결합하여 건국되었다(기원전 57). 신라는 진한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으로 출발하였는데, 초기에는 박·석·김, 3성의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가 번갈아 왕의 자리인 '이사금'으로 추대되었다.

진한 지역의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며 성장하던 신라는 왕권이 커지면서 4세기 말 내물 마립간 때부터는 김씨가 왕위를 계속 이어 나갔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왜의 침략을 격퇴하기도 하였다.



☞ 황남대총 출토 금관

**국가 체제의 정비** 선진 문화와 교류가 적었던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국가 발전이 늦었다.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해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며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5세기 들어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간섭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6세기 지증왕 때에는 우경이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상업도 발달하였다. 그리고 ‘마립간’ 대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신라’라는 국호를 제정하였다. 또한, 우산국(울릉도)을 정복하였고, 지방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였다.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는 등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와 같이 신라는 지증왕과 법흥왕을 거치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 이차돈 순교비 불교를 공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차돈의 순교 모습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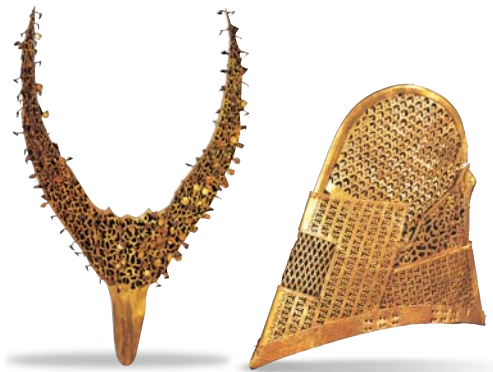
## 지증왕의 업적

명을 내려 순장을 금지하였다. …… 주와 군의 장관에게 명해 농사를 권장하게 하고, 처음으로 소를 이용해 논밭을 갈게 하였다. …… 신하들이 ‘신(新)’이란 글자는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 ‘라(羅)’라는 글자는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이라 하여 나라 이름으로 권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삼국사기”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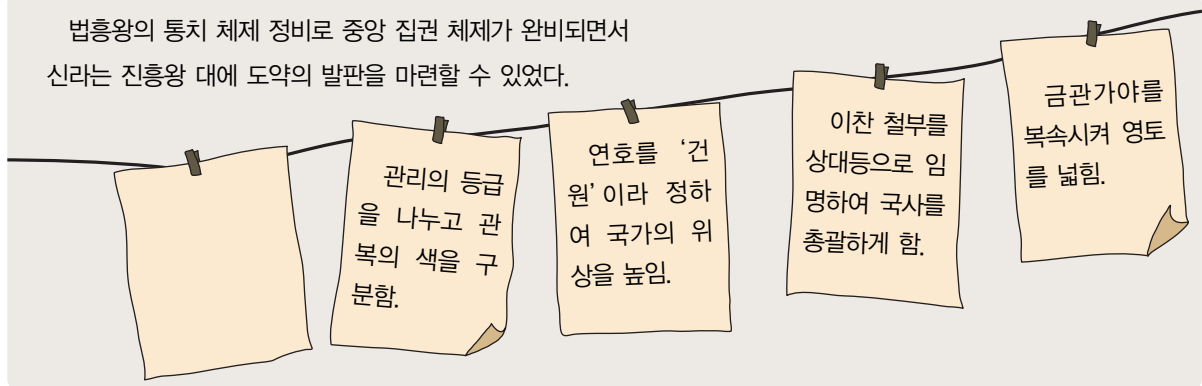


❖ 새 모양의 금제 관식(왼쪽)과 관모(오른쪽)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유물로 신라의 강력한 왕권과 함께 금을 다루는 화려한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 역사 탐구

### 법흥왕의 국가 체제 정비

법흥왕의 통치 체제 정비로 중앙 집권 체제가 완비되면서 신라는 진흥왕 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1. 비어 있는 부분에 법흥왕의 다른 업적을 적어 보자.
2. 법흥왕의 체제 정비가 가져온 결과를 말해 보자.



##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독특한 열쇠, 화백 회의와 골품제

신라에는 화백 회의와 골품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다. 귀족들은 화백 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고, 골품제에 따라 정치·사회 활동에 엄격한 제약을 받았다.

### 화백 회의

신라의 귀족들은 왕위 계승 문제나 전쟁 등 국가의 중대사를 화백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일은 반드시 무리와 더불어 의논하였다. 이를 화백이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통과되지 못하였다.

“신당서”

귀족들은 화백 회의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귀족 세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등은 화백 회의의 의장이 되어 왕을 견제하기도 하였다. 진지왕이 화백 회의의 결정으로 폐위된 사실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 준다.



### 골품제

골품제는 경주에 거주하는 귀족의 신분을 혈연에 따라 서열을 매긴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였다.

진골의 집은 길이와 너비가 24척을 넘을 수 없고 6두품의 집은 21척을 넘을 수 없고……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는 집의 길이와 너비가 15척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삼국사기”

골품제는 신라가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정복 또는 통합된 지역 지배층의 서열을 매기면서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귀족을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었다. 신라의 귀족은 골품에 의해 관직 진출뿐만 아니라 혼인, 주거 생활 등 일상생활까지도 엄격한 제약을 받았다.



1. 신라의 화백 회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 회의를 찾아보자.
2. 골품제가 신라 귀족의 생활에 끼친 영향을 발표해 보자.

## 2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삼국의 주도권을 잡다

**진흥왕의 영토 확장** 신라는 6세기 중반 진흥왕 때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짓고 불교를 정비하여 국가의 정신적 통합을 꾀하는 한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국가 기반을 굳게 다진 진흥왕은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한 후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고(562), 고구려의 영토였던 함경도 해안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삼국 항쟁의 격화**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바닷길을 확보하고, 한강 유역의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또한, 수와 당의 등장으로 동아시아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삼국의 대결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화랑도** 귀족 출신의 청소년 중에 선발된 화랑과 이를 따르는 다양한 신분의 낭도로 구성되었다. 단체 활동을 통해 무예와 사회 규범을 배웠고, 이들이 지켜야 할 규율로 세속 5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순수비** 순수란 왕이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직접 정치나 민심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진흥왕은 자신이 확장한 영토에 여러 개의 순수비를 세웠다.

### 역사 탐구

#### 신라의 한강 유역 차지

6세기 중반 고구려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의 왕위 다툼으로 정국이 불안하였다. 이에 신라 진흥왕은 백제의 성왕과 손잡고 한강 유역의 고구려군을 공격하였다(551). 이때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고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553년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백제가 되찾은 한강 하류 지역을 기습하여 그곳에 신주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는 경제·군사적 요충지와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단양 신라 적성비(충북 단양)  
진흥왕 때 신라가 남한강 유역인 적성 지역을 공략하고 세운 비석이다.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북한산에 세운 비석이다.

6세기 진흥왕의 영토 확장

1. 단양 적성비와 북한산 순수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해 보자.
2.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툰 이유를 설명해 보자.





## 금관가야의 건국 설화

가락 지역은 촌락으로 나뉘어 있었다. 각 촌락의 족장과 사람들이 구지봉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며 춤추고 노래하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로 싼 금빛 상자가 내려왔다. 그 속에 황금색 알이 6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남자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났다. 가장 먼저 나온 아이를 '수로'라 하였다. 금관가야는 김수로에 의해 세워졌다.

📌 가야의 검(경남 함안 말갑옷무덤 출토) 칼의 손잡이 부분에 금실을 박아 넣고 끝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었다.



역사 지식을 넓혀요!

## 가야 연맹 주도 세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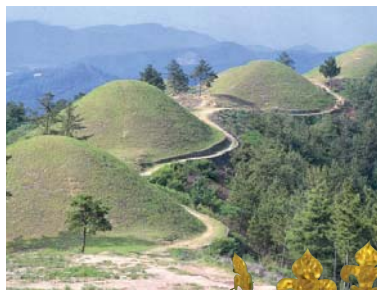
고구려와 신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해안 지역에 위치하였던 금관가야는 크게 약화되었다. 그러나 내륙 지역에 자리 잡았던 대가야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김해 구지봉 금관가야 건국 설화의 배경이 된 곳이다. 김해는 금관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가야 연맹



📌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의 거대한 고분들이 산능선과 사면에 남아 있다.

지산동 고분 출토 금관

📌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을 말해 보자.

## 3 가야 연맹이 성장하다

**가야 연맹의 형성** 변한이 있던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농업과 철기 문화의 발전으로 많은 소국이 나타났다. 주로 산지를 끼고 있는 분지나 해안에 접한 작은 평야 지역에 위치한 소국들은 독립성이 강하여 통일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가야 연맹의 발전** 초기에는 낙동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 지대이자 해상 교통의 요지인 김해 지역에 위치한 금관가

야가 연맹을 주도하였다. 금관가야는 발달된 농업과 풍부한 철을 기반으로 낙랑과 왜를 잇는 해상 교역을 통하여 성장하였다. 그러나 낙랑이 소멸하고 남해안에 자리 잡은 소국들이 반기를 들면서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다가, 신라를 지원한 고구려 군대의 공격으로 크게 쇠퇴하였다.

5세기 후반부터는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내륙에 위치한 대가야는 섬진강을 통한 새로운 바닷길을 개척하여 다시 중국, 왜와 교역을 시도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남하로 뚫어진 백제와 신라의 동맹에도 참여하여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가야 연맹의 해체** 6세기 이후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가야를 차지하려는 백제와 신라의 공격으로 가야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이렇게 불안한 정치 상황과 연맹의 소국 사이의 갈등으로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고(532), 고령의 대가야마저 신라에 정복되면서(562) 가야 연맹은 소멸되었다.



철제 판갑옷(김해 퇴래리 출토)

얇은 철판을 무사의 체형에 맞춰 가볍게 만들었다. 이외에도 가이는 얇은 쇠 조각을 꿰어 만든 비늘 갑옷 등 다양한 철갑 옷을 많이 남겼다.



덩이쇠(함안 도항리 10호분 출토)

불에 달구어 각종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으며, 화폐처럼 통용되었다.



가이는 풍부한 철 산지와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철제 무기와 도구를 제작하였다. 특히 해상 교역이 발달하였던 가이는 질 좋은 덩이쇠를 일본 등에 수출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 내용 정리

### 1.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 (1) □□ 마립간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계속 이어 나갔다.
- (2) □□왕은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신라'라는 국호를 제정하였다.
- (3) □□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 (4) □□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 (5) 가야 연맹은 □□ □□ □□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 2.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옳게 고쳐 쓰시오.

- (1) 지증왕은 이사금 대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 (2) 화랑도는 신라가 정복 또는 통합된 지역의 지배층의 서열을 매기면서 만들어졌다.
- (3)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고구려와의 동맹이 깨졌다.
- (4) 고구려의 침입으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은 대가야에서 금관가야로 넘어갔다.



## 중앙 집권 국가의 발전

삼국은 건국 초기에 연맹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점차 왕권이 성장하면서 왕과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의 지배층은 독자성을 잃고 귀족으로 흡수되었다. 이들은 관등제 등을 통해 왕의 관리로 서열화되었다. 이와 같이 통치 제도가 마련되고 밖으로 정복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국은 중앙 집권적 국가로 성장하였다.

정복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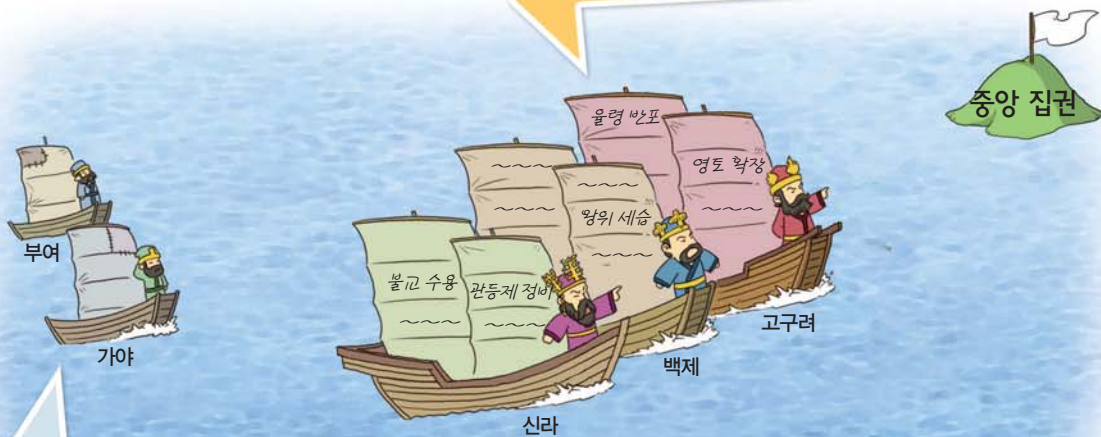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함.

관등제와 관복제를 정비함.

행정 구역을 편성하여 왕이 백성을 직접 다스림.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함.

불교를 수용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임.



### 부여와 가야의 특징

가야 연맹을 형성한 각 소국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유지하여 여러 소국을 하나로 통합할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지 못하였다. 또한, 백제와 신라의 압력이 가야의 성장을 막았다. 이 때문에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 국가 단계에서 신라에 복속되고 말았다. 부여도 삼국과 같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정복당하였다.



1.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말해 보자.
2. 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 4

##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

단원을 배우면

- ▶ 삼국에서 발전한 종교와 학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 삼국과 가야가 남긴 문화유산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 ▶ 삼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와 교류하였는지 말할 수 있다.

역사 속으로

오른쪽 사진은 경주의 부부총에서 발굴된 신라의 금귀고리이다. 서역에서 전래된 금 세공 기술을 이용하여 깨알 같은 금 알갱이 5천여 개를 붙이고, 금실을 꼬아 나뭇잎과 하트 모양의 작은 장식을 달아 화려함을 더하였다. 이렇게 찬란한 문화재를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 1 종교와 학문이 들어오다

**불교의 수용** 여러 자연신을 받드는 무속이나 영혼 숭배 등, 다양한 토속 신앙이 널리 퍼져 있던 삼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면서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는 백성의 정신을 통합하고 왕실의 권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왕실에서 주도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였으며, 국가에서 황룡사나 미륵사와 같은 거대한 사찰을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신라는 불교식으로 왕의 이름을 짓고, 왕실을 석가의 집안에 견주어 권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에서는 승려가 국왕의 정치적 자문에 응하거나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불교와 함께 건축과 예술 등의 선진 문화도 함께 들어왔다.

신라의 불교식 왕명 신라는 법흥왕, 진흥왕부터 선덕여왕, 진덕여왕에 이르기까지 왕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지었다. 특히, 진평왕은 스스로를 석가의 아버지인 백정, 왕비는 석가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으로 칭하게 하였다.

❶ **황룡사 복원 모형과 황룡사 터** 황룡사는 진흥왕 때 월성 동쪽에 왕궁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나자 그곳에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황룡사에 있던 9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

❷ **황룡사 목탑을 9층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오경박사 유교의 경전인 오경에 통달한 관리이다. 백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 학자나 기술자에게 박사 관직을 주었다.

**도교의 수용** 삼국 시대에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 사상에 노장 사상 등이 결합된 도교가 중국에서 전래되었다. 고구려는 무덤 속에 도교와 관련된 벽화를 많이 그렸고, 한때 도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신라의 화랑도에도 도교가 영향을 주었고, 백제에서도 신선 사상이 유행하여 금동 대향로와 같은 여러 공예품에 도교의 신앙 요소가 반영되었다.



### 신라의 임신서기석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맹세하여 쓴다. …… 시, 상서, 예기, 춘추를 차례로 공부하여 익히기를 맹세하되, 3년을 기한으로 하였다. '임신서기석'



**탐구** 밑줄 친 '두 사람'이 익히고자 한 학문은 무엇일까?

**한자와 유교의 수용과 확산** 중국에서 한자와 유학이 전래되면서 고구려는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지방에 경당을 세워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다. 백제에서도 오경박사를 두어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신라에서는 한자의 뜻과 소리를 따서 만든 이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편, 삼국은 학문이 발달하고 국력이 커지면서 역사서를 편찬하였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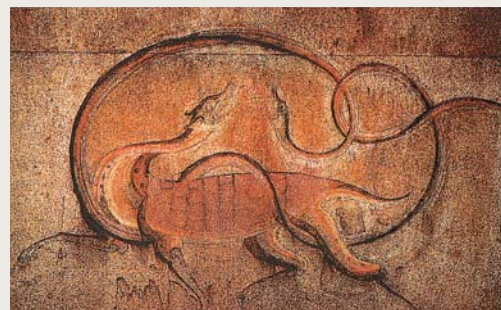


☞ 논어의 글귀가 적힌 목간 (인천 계양산성 출토)



### 도교 신앙의 발달

도교는 귀족 사회에서 유행하며 당시 사상과 신앙, 예술에 영향을 주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도교의 이상 세계를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하였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도교의 신선이나 사후 세계를 지켜 준다는 믿음으로 사신도가 많이 그려졌다. 백제 역시 도교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많이 남겼다.



☞ 강서 대묘의 현무도(남포 강서) 사신도 중 하나인 현무도이다. 도교에서 현무는 청룡, 백호, 주작과 함께 네 방향을 지키는 신 중의 하나이다.



☞ 신선이 사는 이상 세계를 잘 표현한 백제의 산수무비 벽돌(왼쪽)과 상상 속의 새 봉황을 그린 봉황무비 벽돌(오른쪽)이다.

1. 제시된 문화유산에 나타나 있는 도교 신앙의 요소를 찾아 설명해 보자.
2.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삼국의 문화유산을 조사해 보자.

## 2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다

**천문학과 수학의 발달** 삼국 시대 왕들은 하늘과 연결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 이에 일식, 월식, 혜성, 기상 이변 등의 천문 현상을 관측하여 기록하였고 점성술과 관련된 천문학도 발달하였다. 특히 천체 관측은 농사와도 직접 관련이 있어 중시되었다. 고구려는 고분 벽화에 별자리를 그리기도 하고, 신라는 첨성대를 남겼다. 수학도 발달하였는데 수학 지식은 고분이나 탑 등 건축물에 활용되었다.

**금속 기술의 발달** 철을 다루는 일은 국가에서 중요하게 관리하였다. 지금 남아 있는 철제 무기나 농기구, 백제의 칠지도와 금동 대향로,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과 각종 장신구는 삼국 시대의 수준 높은 금속 공예 기술을 보여 준다.

**음악과 미술** 삼국의 음악은 종교 의식이나 축제와 관련하여 발달하였다. 음악가로는 거문고로 유명한 왕산악, 가야금을 만든 우륵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 그림으로는 고구려 고분 벽화나 신라의 천마도 등이 남아 있어 당시의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화가로는 황룡사 벽에 그림을 그린 신라의 솔거, 일본에서 활약한 고구려의 담징이 유명하다.



☞ 첨성대(경북 경주) 천문 관측과 관련된 건축물로 독특한 모양과 구조 때문에 유명하다.



☞ 일본 쇼소인(正倉院)에 있는 신라 가야금

☞ 백제 금동 대향로(부여 능산리 출토) 높이 61.8cm의 향로이다. 꿈틀거리는 용이 연꽃으로 된 몸통 부분을 받치고 있고, 몸통의 뚜껑 꼭대기에 봉황이 앉아 있다.



☞ 비파를 연주하는 악사



☞ 사람 얼굴을 한 짐승



☞ 말을 타고 활 쏘는 인물



☞ 향로의 뚜껑을 펼친 모습 뚜껑에는 많은 산봉우리가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말을 타고 활 쏘는 인물, 봉황과 용을 비롯한 상상 속의 동물, 호랑이와 사슴 등 현실 세계의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 밖에도 나무와 바위, 시냇물, 폭포, 호수 등이 변화무쌍하게 표현되어 있다.







☺ 가야의 창녕 송현동 고분에서 발굴된 뼈로 복원한 얼굴 모습이다. 주인을 따라 순장된 소녀로 추정된다. 심한 충치를 앓았고 무릎을 꿇는 생활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 3 고분과 불교 유산을 남기다

**고분과 고분 벽화** 삼국 시대 사람들은 죽은 뒤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죽은 이를 위한 공간으로 무덤을 만들었다. 삼국은 나라마다 독특한 형태의 고분을 만들었는데, 고구려는 초기에 시신을 안치한 후 돌을 덮어 마감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다. 이후 돌을 쌓아 방을 만든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벽화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백제 초기에는 한강 유역에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많이 남겼으나, 이후 부여 능산리를 비롯한 여러 곳에 굴식 돌방무덤을 남겼다. 또한, 공주 무령왕릉과 같은 벽돌무덤도 남아 있다. 신라는 거대한 봉분을 가진 돌무지덧널무덤과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 가야에서는 구덩이를 파고 돌로 네 벽을 쌓아 시신을 묻는 돌덧널무덤을 많이 만들었는데, 고령과 김해 등지에 큰 규모의 고분들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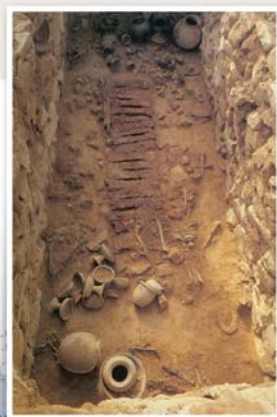


☞ 고구려 계단식 돌무지무덤(지린 성 지안)과 백제 석촌동 무덤(서울 송파) 고구려와 백제의 돌무지무덤은 계통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백제 건국의 주도 세력이 고구려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해 준다.



☞ 백제 능산리 고분군(충남 부여) 굴식 돌방무덤 형태로 7기가 발굴되었다.

☺ 가야 복천동 고분(부산 동래) 가야 시대의 고분으로, 여러 형태의 무덤 40여 기가 발굴되었다.



## 고대인의 보물 창고, 삼국의 고분

삼국은 다양한 형태의 거대한 고분을 여러 곳에 많이 남겨 놓았다. 특히 굴식 돌방무덤과 돌무지덧널무덤은 삼국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 양식이다.

### 굴식 돌방무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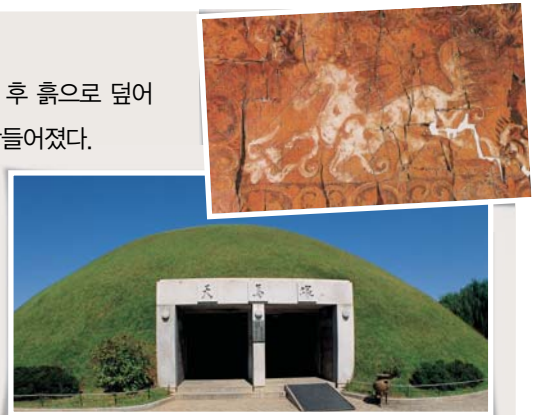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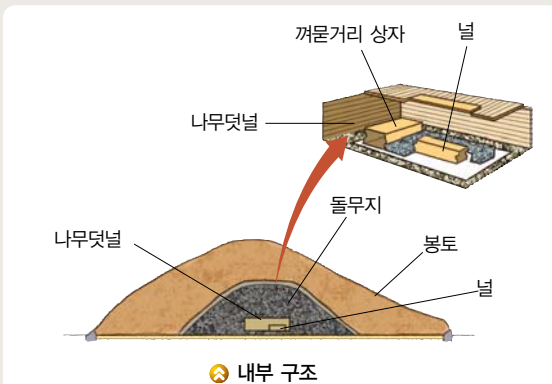
돌을 깎고 쌓아 시신을 안치할 돌방을 만들고 그 위를 흙으로 쌓아 봉분을 만든다. 돌방 안의 천장과 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당시 신앙과 생활 등을 생생하게 알 수 있다.



☞ 오화분 4호묘(지린 성 지안) 벽화가 그려진 돌방 내부의 모습이다. 천장과 벽에 그려진 화려한 벽화는 당시의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처음에는 생활 모습을 그린 그림이 많이 그려졌으나, 점차 사신도와 같은 상징적 그림이 그려졌다.

### 돌무지덧널무덤

시신을 안치한 널을 또 다른 큰 널에 넣고 그 위에 돌을 쌓은 후 흙으로 덮어 거대한 봉분을 만든 무덤이다. 삼국 통일 이전 경주 일대에서 만들어졌다.



☞ 천마총과 천마도(경북 경주) 1973년 발굴되어 금관과 천마도 등 1만 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천마도는 나무 껍질로 만든 말다래(옷에 흙이 튀지 않도록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것) 위에 그린 것이다. 최근 천마는 기린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현재 무덤 내부를 복원하여 공개하고 있다.



1. 굴식 돌방무덤과 돌무지덧널무덤의 형태로 만들어진 삼국의 고분을 각각 찾아보자.
2. 돌무지덧널무덤에서 꺼묻거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고대인이 큰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든 이유를 조사해 보자.





⚡ 고구려의 금동연가7년명여래 입상(경남 의령 출토) 몸에서 나오는 빛을 나타낸 광배와 친근한 미소로 유명하다. 광배 뒷면에 '연가 7년'으로 시작하는 글이 새겨져 있다.



⚡ 백제의 서산 마애 삼존불상 산속 절벽의 바위에 새긴 삼존불이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얼굴 모습으로 유명하다.



⚡ 신라의 경주 배동 석조 여래 삼존 입상 눈두덩과 양쪽 뺨을 부풀린 아기 같은 얼굴이 특징이다.

▶ 두 불상의 공통점을 보이는 대로 말해 보자.



## 미륵 신앙

미륵불은 민중을 구제하여 불교의 이상 사회를 만든다는 미래의 부처이다. 미륵불은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 중에 하나인 도솔천에서 설법을 하고 있으며, 석가모니불의 뒤를 이어 현실 세상에 나타나 모든 중생을 교화한다고 한다.

미륵이 내려와서 고달픈 현실로부터 중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염원은 사회 개혁 이념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미륵 신앙은 삼국 시대에 크게 유행하여 백제의 미륵사 창건, 신라의 화랑도에도 영향을 주었다.

▶ 왼쪽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은 삼국 중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오른쪽은 삼국 불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일본 고류 시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이다.

▶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이해 보자.



**탑의 축조** 삼국은 불교를 수용하면서 절을 짓고 탑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탑은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나무로 탑을 만들었으나 점차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인 돌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백제는 지금 남아 있는 삼국 시대 석탑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만들었다. 두 석탑은 목조 건축물의 양식을 본뜬 것으로 규모가 크다. 특히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세련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 준다.

신라는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웠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신라의 석탑으로는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은 분황사 석탑이 있다. 이처럼 삼국의 불교 예술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창적인 발전을 통해 고대 문화를 꽃피웠다.



❁ 파사 석탑(경남 김해) 금관가야를 세운 수로왕의 비 허황옥이 서역의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이 탑을 배에 싣고 왔다고 전해진다.

❁ 왕흥사(충남 부여) 목탑이 있던 자리에서 발굴된 사리함과 사리공양품 사리함에 백제 창왕이 절을 세웠다는 내용의 글이 새겨져 있다. 신라군에 목숨을 잃은 성왕의 아들 창왕(위덕왕)이 불법을 통해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아버지의 뜻을 잇고자 한 것이다.



❁ 정림사지 5층 석탑(충남 부여) 목조탑의 양식을 계승한 석탑으로 높이가 8m가 넘는다.



❁ 분황사 석탑(경북 경주)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들었다. 7층 또는 9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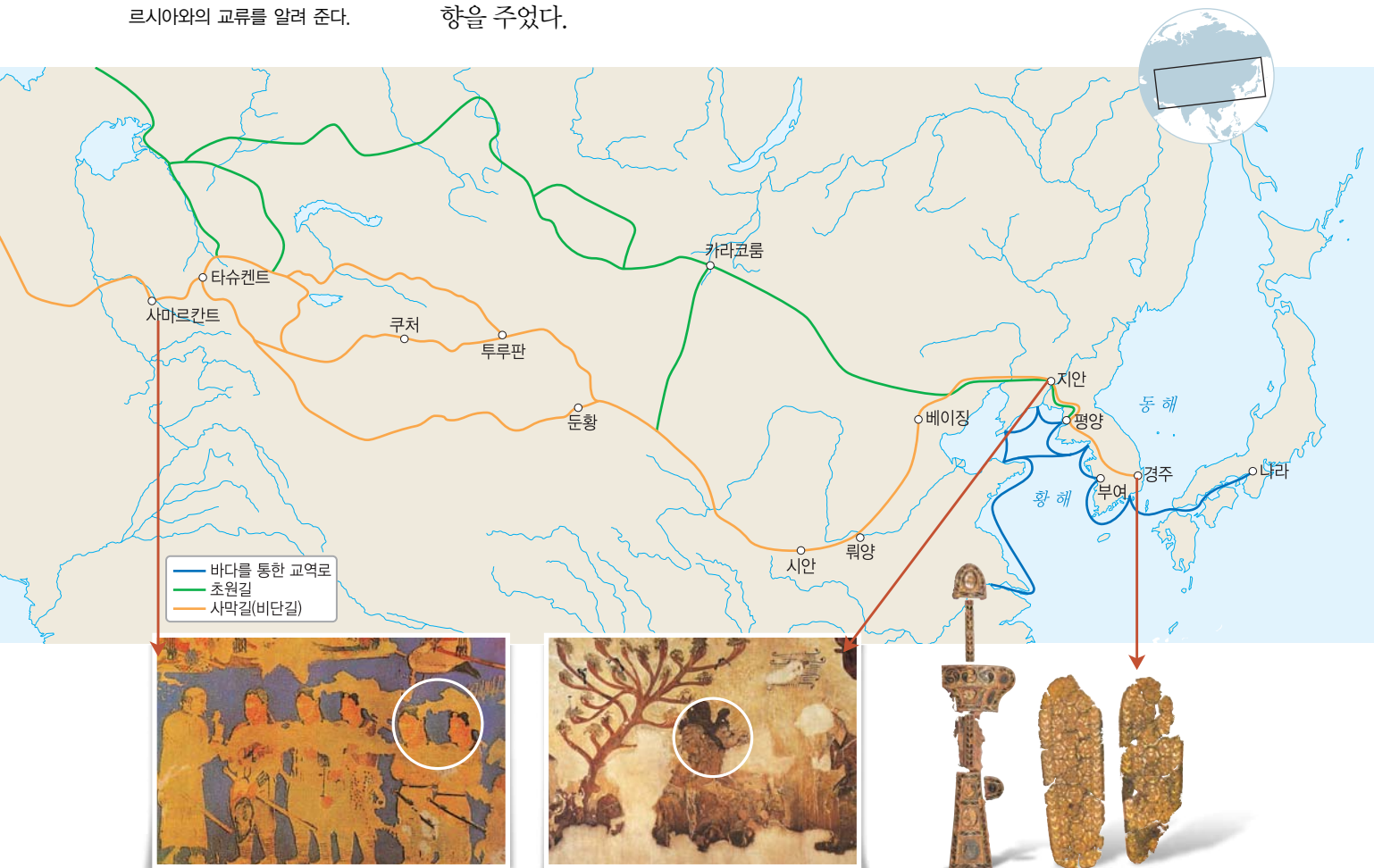


경주에서 출토된 사람 얼굴이 새겨진 유리구슬과 유리 제품 다양한 유리 제품은 서역 중에서 페르시아와의 교류를 알려 준다.

#### 4 중국, 서역, 일본과 교류하다

**중국, 서역과의 대외 교류** 삼국은 각각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웃 나라와도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물을 전하였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북조를 비롯해 북방 초원의 여러 민족과 교류하였고, 바다를 통해 남조와도 교류하였다.

백제도 중국 동진을 비롯한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하여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중국과 가야, 왜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을 주도하여 해상 왕국으로 성장하였다. 신라는 초기에는 고구려를 통하여 중국 문화를 수용하였으며, 초원길과 바다를 통해 서역 문화와도 접촉하였다. 가야도 바다를 통해 중국이나 왜와 교류하면서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켰고 신라에도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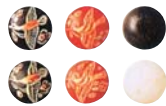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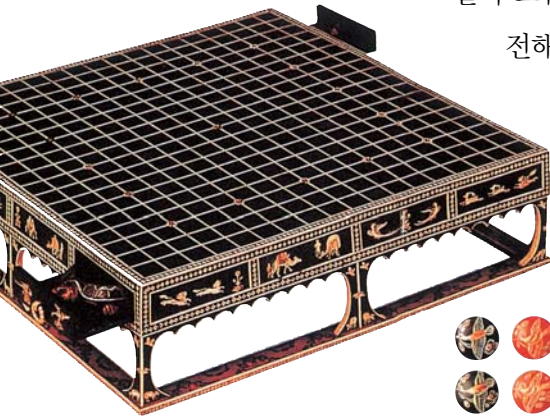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우즈베키스탄)에는 고구려 사신이 보인다.

고구려 고분 각저총의 벽화(지린성 지안)의 인물 중 한 명이 서역인의 모습이다.

경주에서 출토된 서역 장식 보검과 신발 바닥판으로 서역에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의 교류** 삼국과 가야는 다양한 방면에서 일본과 교류하였다. 특히 일본과의 교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교류에 적극적이었다. 또한, 정치적 변동에 따라 삼국과 가야에서 많은 사람이 일본에 건너갔는데, 이들은 일본의 중앙 정권뿐만 아니라 지방 세력에도 한반도의 문화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삼국이 일본에 전한 불교문화와 학문, 과학 기술은 일본의 고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백제는 일본과 정치적으로 긴밀히 교류하면서 아식기와 왕인 등이 한자와 유학 등을 전해 주었다. 또한, 의박사, 역박사, 천문박사 등도 일본에 건너가 과학과 기술을 전하였다.



❖ 일본 쇼소인(正倉院)에 있는 백제 바둑판과 바둑돌



❖ 호류 사에 있는 백제 관음상 불교 미술의 최고 경지를 보여 주며, 백제의 불교와 미술이 일본에 전파된 것을 알 수 있다.

### 역사 지식을 넓혀요!

#### ❖ 자랑스러운 백제의 기술자들

일본에서 불교가 공인되고 일본 조정도 불교를 적극 장려하여 사찰을 건축하자 백제는 승려, 기술자를 보내 사찰 건립을 돕게 하였다. 이때 석마제미는 기와를 만드는 전문 기술자인 와박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석마제미 외에도 와박사 양귀문, 절 만드는 기술자인 사공 태량미태, 그림 그리는 화공인 백가 등 수많은 기술자가 함께 파견되어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 일본에 있는 백제 기와 건물(간고 사) 지붕 한쪽의 오래된 기와들이 백제 기와라고 전해진다.



❖ 호류 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일본에 건너간 백제의 기술자가 참여하여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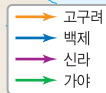
고구려는 일본에 종이 만드는 법을 전하고 미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신라 역시 배 만드는 기술과 독 쌓는 법 등을 전하였다. 그리고 가야는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전하고 일본의 토기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삼국의 문물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는 고대 아스카 문화가 성립되었다.



☞ 왼쪽은 전북 익산 입점리에서 오른쪽은 일본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 관모와 금동 신발이다. 그 형태와 제작 방법이 매우 유사하여 백제와 일본의 문화 교류 사실을 잘 보여 준다.



☞ 장고형 무덤 영산강 유역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무덤은 주로 고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무덤의 기원과 무덤을 만든 주인공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바람개비 모양의 방패 장식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일본에서 전해졌다.



☞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왼쪽)와 다카마쓰 고분 벽화(오른쪽)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이 서로 비슷하여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가야 토기(왼쪽)와 일본 스에키 토기(오른쪽) 가야의 독특한 토기 문화는 일본 토기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 내용 정리

### 1. 빈칸을 적절히 채우시오.

- (1) 고분 중      에는 많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 (2) 고구려의        여래입상은 광배와 친근한 미소로 유명하다.
- (3) 경주    석탑은 돌을 벽돌처럼 깎아 쌓았다.

### 2. 글자를 조합하여 해당 내용을 찾으시오.

- (1) 사신도와 산수무늬 벽돌 등에 영향을 준 신앙
- (2) 백제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 주었던 관직
- (3) 삼국 문물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일본 고대 문화

교  스  아  도  사  카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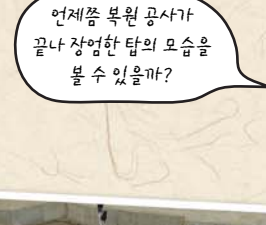
☞ 석탑 해체 전의 모습 남은  
부분의 높이는 14.24m에 이른다.



☞ 익산 미륵사의 복원 모형



☞ 2009년 석탑 해체 복원 과정 중 석탑의 돌기둥 밑에서 발굴된 금제 사리호와 사리이다.



☞ 석탑을 해체한 후 복원하는 작업 모습이다.

## 해 보기

1. 서동과 선화 공주, 미륵사 창건에 얽힌 설화에 대해 알아보자.
2.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세부적인 모습을 설명해 보자.

#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이다. 서탑만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 1400여 년을 거치면서 윗부분이 무너지고 본래의 모습이 많이 손상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석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면서 거의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2001년부터 본격적인 해체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석탑의 흩어진 석재들을 맞추는 작업이 어려워 6층까지만 부분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공사 도중 사리를 보관하였던 사리장엄이 발굴되기도 하였는데, 그 안의 금제 사리봉안기에는 무왕의 왕비가 백제 8대 귀족 성 중 하나인 '사택' 씨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신라 출신인 선화 공주가 미륵사를 조성하였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언제쯤 복원 공사가 끝나 장엄한 탑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다음 **단답형** 물음에 답해 보자.

- 1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한 고구려의 왕은 누구인가?
- 2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여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 고구려의 왕은 누구인가?
- 3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사실을 알게 해 주는 비석을 쓰시오.
- 4 백제 왕이 왜왕에게 보낸 것으로 당시 백제와 일본의 정치적 관계를 보여 주는 유물은 무엇인가?
- 5 백제 성왕이 도읍을 옮긴 곳으로, 수로 교통이 편리한 평야 지대는 어디인가?
- 6 신라 초기 박, 석, 김 3성이 번갈아 왕위에 오를 때 사용된 것으로 '연장자' 또는 '계승자'의 의미를 가진 왕호는 무엇인가?
- 7 '마립간' 대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신라'라는 국호를 제정한 왕은 누구인가?
- 8 경주에 거주하는 지배층을 진골이나 6두품 등으로 구분한 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는 무엇인가?
- 9 시신을 안치한 널을 또 다른 큰 널에 넣고 돌을 쌓은 후 흙으로 덮어 만든 고분 양식은 무엇인가?
- 10 벽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은 신라의 탑은 무엇인가?

※다음 **서술형** 물음에 답해 보자.

- 11 삼국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순서를 쓰고, 한강 유역을 두고 치열하게 싸운 이유를 서술하시오.  
교과서 49, 51, 59쪽 확인
- 12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김해 지역의 가야를 공격하여 나타난 가야 연맹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교과서 60쪽 확인
- 13 삼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면서 나타난 공통적인 모습을 서술하시오.  
교과서 62쪽 확인
- 14 삼국의 왕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교과서 63쪽 확인
- 15 삼국이 만든 불상이나 탑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 특징을 서술하시오.  
교과서 68, 69쪽 확인

# 삼국 시대 왕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할극 만들기

삼국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안으로는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밖으로는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쳐 나갔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서로 교류하며 동맹을 맺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전사할 정도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삼국 시대 여러 왕이 추진한 정책이나 활동을 소재로 재미있는 역할극을 꾸며 보자.



## ● 역할극 소재

- 주몽과 온조, 그리고 박혁거세의 만남, “건국 초기에는 힘든 일이 많지요.”
- 근초고왕과 고국원왕의 만남, “우리 누가 이기나 봅시다.”
- 소수림왕과 법흥왕의 만남,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 광개토 대왕과 내물 마립간의 만남, “우리 함께 왜와 가야 세력을 물리칩시다.”
- 장수왕과 개로왕의 만남, “한강은 내 것이야.”
- 동성왕과 무령왕, 그리고 성왕의 만남, “우리의 목표는 백제 부흥”
- 성왕과 진흥왕의 만남, “우리 서로에게 맺힌 한을 풀어 봅시다.”

## ● 대본 예시

성 왕: 이렇게 만남을 청한 것은 우리 백제의 옛 땅인 \_\_\_\_\_ 을 고구려로부터 되찾는 데 동맹국인 신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가야도 우리 백제와 행동을 함께 하기로 했소.

진흥왕: 우리가 백제를 도와 얻는 이득이 무엇이오? 강력한 고구려를 상대로 아무 이득 없이 군대를 움직일 수는 없소이다.

성 왕: 우리 군이 \_\_\_\_\_ 를 공격하는 사이 신라가 \_\_\_\_\_ 를 공격하면 되오. 제 아무리 고구려가 강하다고는 해도 두 지역을 동시에 방어할 수는 없소이다. 신라로서도 쉽게 \_\_\_\_\_ 를 얻을 수 있으니 나쁜 조건은 아닐 것이요.

진흥왕: 좋소이다. 사실 나도 최근 고구려의 거만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소. 고구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 줍시다.

## 모둠 활동 방법

- ① 모둠별로 역할극의 소재가 될 왕을 선정한다. 시기, 사건, 공통된 업적 등 서로 연관이 있는 왕을 위주로 선정한다.
- ② 모둠별로 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왕의 정책이나 업적 등을 찾아본다.
- ③ 수집한 자료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역할극의 방향을 정한다.
- ④ 모둠의 공동 작업으로 역할극을 위한 대본을 완성한다.
- ⑤ 배역을 정하고 연습을 한 후 수업 시간에 발표한다.
- ⑥ 모둠별 역할극이 끝나면 모두 함께 역할극의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역할극 대본을 만들 때 모둠원 모두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흥미 있는 역할극을 꾸며 본다.

1. 밑줄 친 부분을 채워 대본을 완성해 보자.
2. 삼국 시대 다른 왕을 선정하여 역할극을 만들어 보고, 주인공에 해당하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마인드맵을 그려 보자.